

제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안전보건 문화 확산 나섰다’

취재 | 임동희 기자

제4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월 6~10일) 기념식이 6일 오전 11시 COEX 그랜드볼룸에서 노·사·정 대표, 안전보건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산재예방 관련 분야에서 공헌을 한 87명에게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노동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무재해 20배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전병일 동아특수정밀(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전병일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동아특수정밀을 운영해 오면서 기록한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무재해 20배를 달성하기까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울러 칠담산업훈장은 계층별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과학적인 작업분석을 통해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 임원희(주)포스텍 안전팀장이 수상했으며, 석담산업훈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삼성물산(주) 상무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이날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안전보건에 대해 자칫 소홀할 수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일터의 안전보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범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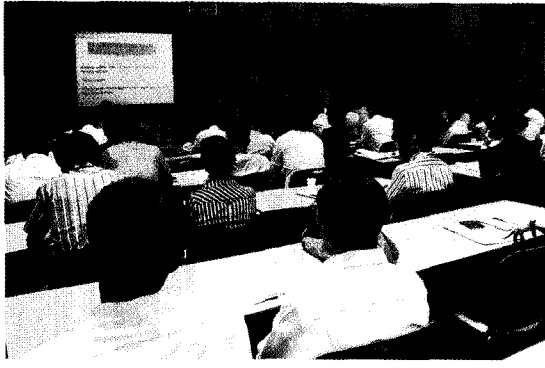
최신 안전보건정보 교류의 장 ‘세미나’

안전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세미나와 우수 사례발표대회는 5개 주제를 가지고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1주제인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전략수립’에서는 산업안전보건시장 육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고용창출의 방안에 관한 세미나와 비람직한 현장의 안전교육 및 활동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제2주제인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인간공학적 예방전략, 그리고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울러 제3주제인 ‘건강한 근로자-산업보건의 목표 분야’에서는 직





업자 중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의 현황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4주제인 '화학물질의 올바른 이해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화학물질의 정보전달 활성화 방안, 석면관련 제조물 책임법(PL) 소송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마지막으로 5주제인 '사업장 안전보건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산업간호, 위험성평가 등 10개 분야에 걸쳐 각 업체별 우수사례가 열띤 경합을 펼쳤다.

안전보건 관련 최신기술 '한자리에'

6일부터 4일간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된 제27회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서는 안전보건의 최신장비와 제품들이 선보였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보건 전시회로, 올해에는 450여개 부스에 미국, 일본, 독일 등 15개국에서 200여개 업체가 참여해 1만여점의 최신안전보건 장비와 제품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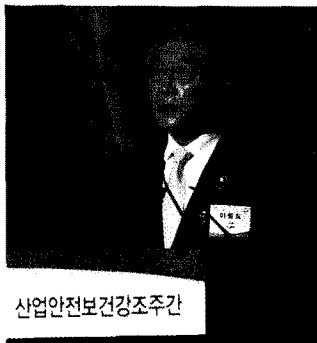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위생보호구 등의 작업환경개선제품은 물론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안전제품들도 선보였다.

이밖에도 비만도, 근력, 근지구력 등 자신의 체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코너,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민 참여행사도 '눈길'

한편 올해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보건 UCC SHOW'.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일반시민과 학생, 근로자 등 1,000여명이 응모한 가운데,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품한 김미정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9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동요제가 개최됐다. 총 14개팀이 열린 무대를 연출했던 가운데, 대상은 '조심조심 천천히'란 곡을 부른 서울봉천초등학교 합창단이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부는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또한 노·사의 자율적인 산재예방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 전문가, 사회구성원 모든 분들도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